



주간 테러동향(제510호)

'26. 7. 10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테

○ 韓 해수부, 인천·부산·울산항에 '안티드론 시스템' 본격 가동

- 7.2 언론은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인천·부산·울산항에 불법 드론 탐지·재밍·포획 드론 등으로 구성된 안티드론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, 내년부터 전국 무역항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

○ 韓 국민 안보위협 불안감, '사이버테러'가 4년연속 최고

- 7.2 언론은 국민 대상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, 안보위협 불안감이 사이버테러(72%), 북한 무력도발(52%), 감염병 유행(44%) 순으로 나타나 '사이버테러'가 '23년부터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'사이버테러' 불안감이 이념·성별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높으며, 특히 보수층(84%)과 60대(80%)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부언

○ UAE, 헤즈볼라와 연계된 테러 네트워크 해체

- 7.4 외신은 아랍에미리트(UAE) 국가안보부가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란의 자금 및 지휘를 받는 테러조직을 적발해 조직원들을 체포했으며, 허위 상업단체를 통해 UAE 경제에 침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

※ 언론은 해당 조직이 자금세탁·테러자금 조달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 됐다고 부언

○ 韓 국가유산청, 48차 세계유산위 앞두고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

- 7.7 언론은 국가유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지난 6일 부산 벡스코에서 폭발물 및 미상의 백색가루 발견 상황을 가정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보도

※ '허민' 국가유산청장은 대테러·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, 행사 종료 시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부언

미 주

○ 美·중동 7개국, 헤즈볼라 금융기관 겨냥 제재

- 7.1 언론은 미국과 걸프 7개국으로 구성된 테러리스트 자금추적센터(TFTC)가 헤즈볼라의 핵심 금융 인프라를 차단하기 위해 5개 기관 및 개인 16명을 대상으로 공동 금융제재를 단행했다고 보도

※ 美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헤즈볼라와 연계된 금융 네트워크를 겨냥하여 이들의 자금 접근을 전면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부언

○ 美, 독립기념일 축제에 총격 사건 발생

- 7.6 언론은 미국 독립기념일 늦은 밤 뉴욕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8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 1정을 회수했지만 용의자는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 보도

※ 복면을 쓴 용의자는 바베큐를 즐기던 가족을 향해 총을 쏜 뒤 도주했다 부언

○ 美, LA에서 월드컵 멕시코-잉글랜드전 직후 총격 사건…4명 부상

- 7.7 언론은 2026 월드컵 멕시코-잉글랜드전 직후, 美 로스엔젤레스 동부에서 응원단 사이에 총격 사건이 발생, 용의자가 겨냥한 2명과 옆에 있던 여성 1명, 남성 청소년 1명 등 총 4명이 총상을 입었다 보도

※ 지역 매체들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6일 오전까지도 경찰 당국이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으며, 총격 용의자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다 부언

유럽

○ 독일, 테러 조직 결성 음모 혐의로 용의자 체포

- 7.1 외신은 독일 연방 검찰청이 메시징 앱으로 추종자를 모집해 살해·방화를 선동하고 루마니아 정부 전복과 나치 정권 수립을 모의한 극우 테러 혐의로 루마니아인 「니치타 P」를 체포했다고 보도

※ 당국은 용의자 「니치타 P」가 독극물, 폭발물, 화염병, 차량 폭탄 제조법 유포 및 어린 소녀들에 대한 자해 선동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'777 Day'* 이라크 자살폭탄 테러 사건

* 서양에서는 '07년 7월 7일을 숫자 '7'이 세번 겹친 길일로 여기며 '777 Day'로 호칭

- '07.7.7, 오전 8시30분경 이라크 북동부 키르쿠크 부근 에메를리 마을의 시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, 150여 명 사망·250여 명 부상



- 에메를리는 2만 6천여명이 거주하는 시아파 인구 다수 마을로 수도 바그다드에서 160km 떨어져 정부 치안력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
 - 사건 당일 테러범들은 외견상 이라크 군용차량과 유사한 대형트럭 두 대에 2t 분량의 폭약을 탑재한 채로 시장으로 돌진해 자폭하였으며, 사고 지점에는 아침 장에 나선 주민들로 붐벼 다수 사상자 발생
- 사건 직후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었으나 이라크 정부는 관련 테러를 시아파 주민을 겨냥한 수니파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분석
- 한편, 駐이라크 美軍사령관 「퍼트레이어스」 역시 해당 테러에 대해 “알카에다 연계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이다”라고 평가

테러 상식

< 알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쏘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해 '88년 결성



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